

경기동지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약속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주제로 진행



경기동지방회(회장 강수원 목사)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지난 6월 28일(토) 이천사랑교회(지태화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교사와 어린이 8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강습회는 ‘재림’(약속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방회장 강수원 목사이천중앙교회)가 ‘가르침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고, 이후 오전 강의로 총회 교육국 강사들의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롭게 나온 찬양을 익히고,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교육국장 임현교 목사의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공과와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과의 내용을 익히고,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교사들을 위한 사명부흥회를 진행하여 개군영광교회 차희성 목사가 ‘복음은 능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사명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뜨거운 기도와 함께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3년째 강습회를 이어온 이번 강습회는 다른 지방회 교회도 함께 참여하여 더 뜻깊은 강습회가 되었다. 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개교회가 더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장교회, 창립 52주년 기념 장로장립식 거행

정은수 권사 장로장립…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할 것”



서산지방회 부장교회(김병옥 목사)가 지난 6월 22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정은수 권사 장로장립식을 거행했다.

1부 예배는 담임 김병옥 목사(부장교회)의 사회, 이근희 목사(지방회서기, 원정교회)의 기도, 윤성균 목사(지방회부서기, 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류제곤 목사(서산지방회장, 합력제일교회)의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상혁 목사(햇빛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2부 장로장립식은 김병옥 목사(부장교회)의 사회, 최요한 목사(태안샘물교회)의 기도, 안수위원 김용우 김병옥 류제곤 이강우 목사와 이용국 노용찬 장로의 인수가 있었으며, 안수식을 통해 정은수 권사가 장로되었음을 공표하였다. 3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위광필

목사(부평남부교회 원로)가 장로에게 권면하고, 한인섭 목사(믿음교회)가 교우에게 권면했다.

이어 박양선 목사(대로교회)와 이능호 목사(필리핀 호렙신학교장)의 축사, 부장교회 김진자 권사의 축가, 기념메달 및 장로 장립패를 전달한 후 김하은 목사(경평교회, 하림교회의) 축도로 임직 감사예배를 마쳤다.

이날 임직자 정은수 장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귀한 직분을 받기까지 바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권면을 부탁하며 담임목사를 돕고 성도를 돌보는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서산지방회주재기자 이근희 목사

서울서지방회, 담임목회자부부 영성수련회

‘안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



서울서지방회(회장 이상복 목사)는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에서 담임목회자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리부팅(Rebooting), 리프레쉬(Refresh) ‘안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푸꾸옥은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되어져 있는 휴양지이다. ‘베트남의 제주도’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에메랄드빛 해변, 그리고 다양한 즐길 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푸꾸옥의 주요 특징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서 1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변들이 푸꾸옥의 가장 큰 매력으로, 해변마다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휴양지에 비해 비교적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내륙에는

유네스코 생물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과 열대우림이 있어 하이킹이나 폭포, 동굴 탐험 등도 가능하다.

푸꾸옥은 연중 따뜻한 열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약 27도씨, 크게 건기(11월~4월)와 우기(5월~10월)로 구분하지만, 우기에도 비가 짧게 오는 경우가 많아 연중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다.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는 푸꾸옥 여행의 최적기로 꼽히고 있다. 특산물로서는 후추와 느억담 그리고 진주를 꼽을 수 있는데, 후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질 좋은 후추의 생산지이다.

서울서지방회 목회자부부 28명은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먹거리 문화 그리고 잘 형성된 아시안 등을 돌아보면서 ‘안식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다.

서울서지방회주재기자 김현기 목사

장곡남부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및 권사 취임식

대지 387㎡ 위에 99㎡의 아름다운 교회 건축



충서지방회 장곡남부교회(이종원 목사)가 지난 6월 28일(토) 오전 11시에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 및 권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방회 부회장 손기선 목사(미당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장로부회장 김동준 장로(삼교교회)의 기도와 서기 유신 목사(신암교회의) 성경봉독, 전 총회장 김윤석 목사(좋은아웃교회)의 ‘은혜로 세운 집 사명으로 섬기는 교회’(시 127:1)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 지방회 회계 황종만 목사(삼교교회의) 헌금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권사 취임식에는 이종원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청광감람 서기 정기영 목사(물댄동산교회)의 임직자를 위한 기도와 지방회 부서기 고영준 목사(홍성중앙교회)가 임직자들을(권사 3명) 소개를 하고, 안수식을 통해 이종원 목사(장곡남부교회)가 장곡남부교회 권사가 되었

음을 공표하였다. 이후 3부 축하의 시간에는 총회 총무 권순달 목사의 권면과 대천소망교회 박종복 목사(전 지방회장의 권면, 사랑의교회 윤병선 목사(지방회장의 축사 후 이선미 집사 외 1명의 몸 찬양과 트루디스 찬양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감사함을 더했다. 이어 김진규 장로의 광고 및 인사 이후 신암교회 유홍욱 원로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임직식을 마쳤다.

장곡남부교회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126 위치하고, 대지 387㎡(117평) 위에 99㎡(3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번에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권사 취임:이미숙 이철순 최종순.

충서지방회주재기자 손기선 목사

부천소망교회,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故 이병탁 목사의 믿음의 유산 이어받아



부천지방회 부천소망교회(김금숙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3시에 김금숙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먼저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인 윤경일 목사(여월동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부회장 박병두 목사(행복한목양교회)의 기도와 지방회장 최상현 목사(행복한교회)가 ‘구별하시는 여호와’란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이어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지방회장 최상현 목사의 기도와 서약, 공포로 마치고, 3부로 축하해 전달, 권면, 축사, 축도 등의 순서를 각각 맡은 이들이 담당하였다.

이날 담임목사로 위임한 김금숙 목사는 오랜 병마 속에서 끝까지 목회자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남편 고 이병탁 목사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에 단정한 사람의 위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계승이었다. 김금숙 목사는 남편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곁에서 말없이 함께 걸어오면서 이미 오랫동안 목자의 길을 걸어왔었다.

김금숙 목사는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 중에도 눈물로 신학을 공부하였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선 것이며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섭리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실감하였다. 사모가 아닌 목사로 위임을 받은 김금숙 목사는 오늘날부터 목회라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름심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섬김과 기도로 교회를 품어왔다. 그래서 이 위임은 단지 직분의 변화가 아니라 김금숙 목사의 눈물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응답이었다. 김금숙 목사는 사백이 교회와 제법 먼 거리임에도 매일 걸어 다니며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실천해 왔다. 특히 사백이 아파트 19층 입에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오르내리며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단련해 왔다. 신발이 다 닳도록 걸어 다닌 그 걸음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걸음이었었고 오직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었다. 위임받은 김금숙 목사는 직분을 받기에 앞서 이미 삶으로 목회해 왔고 기도로 교회를 품어온 분이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규암성결교회, 사중복음 특강으로 교단 정체성과 신학적 전통 계승 결의

규암성결교회(장윤석 목사)는 지난 6월 14일 토요일 김영택 목사(삼성교회)조직신학을 강사로 “사중복음(四重福音)이란 무엇인가? - 사중복음과 규암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교회 성도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회 부속 신학 곳트 래성경학당(Good-Free Bible College) 주관 신앙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지방회장 안을수 목사(공주제일교회)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사중복음 특강을 통하여 김영택 목사는 “한강이 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성결교회로서 규암교회의 역대 교역자를 보면, 한국 성결교회 대통의 주역인 김상준 목사(당시 전도사가 규암교회의 초대 담임 교역자였고, 성결교회 전국적 확산의 주역인 박제원 전도사(2대), 한국성결교회의 사부(衛父) 이명직 목사(3대), 순양원 목사의 동생인 손문준 전도사(8대), 성결교회의 큰 인물 중 한 명인 손배구 목사의 부친 손갑중 목사(9대)를 비롯하여 한국성결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거쳐 갔음”을 언급하면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모교이기도 한 규암 교회에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적 전통인 사중복음을 더 힘써 계승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음”을 역사적 신앙적 과제로 강조 제시했다.

사중복음을 주제로 신앙특강의 시간



을 갖은 규암성결교회는 작년에는 교회 창립주간에 이종동 목사(코디네 교회)를 강사로 ‘사중복음 부흥회’를 갖은 바 있다. 교단의 정체성이자 계승해야 할 사중복음을 주제로 교단 신학을 짚어지고 가야 할 책임 있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영택 목사를 강사로 사중복음 관련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하여 중생(重生) 성결(聖潔) 신유(神癒) 재림(再臨)의 복음이 하나님나라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임을 심도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규암교회 제공)

복음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

열방 품고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기 위해 힘쓸 것



서울지방회 복음교회(최경자 목사)가 지난 6월 22일(주일) 오후 3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방회부회장 진순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서기 이강호 목사의 기도, 지방회부서기 이규현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규 목사의 ‘앞서서 가는 사방들’(눅 19:28)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신 모습을 생각하며 임직자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앞서서 가시

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2부에는 안수집사(노점계)와 권사(박은혜)를 안수하여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다.

3부 축하 및 권면시간에는 여목회자회의 축가, 여목회자회 전 회장 조명선 목사의 축사, 동부감찰장 신동선 목사의 권면, 지방회장 이규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복음교회는 이날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 앞으로 더 열방을 품고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기 위해 힘써 전진할 것이다.

서울지방회주재기자 이강호 목사

푸른초장교회, 장로·권사·안수집사 취임 및 임직 감사예배

교회 부흥 위해 봉사하며 충성 다할 것 다짐



경기남지방회 푸른초장교회(김태성 목사)가 6월 29일(주일) 장로·권사·안수집사 취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김태성 목사(지방회 회계)의 사회, 한제환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기도, 박현재 목사(지방회 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송용현 목사(지방회장)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부 장로·권사취임식에서는 김기영 협동장로가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길 것을 서약하며 장로취임을 받았으며, 최은경, 유수진 협동권사는 겸손하게 충성된 권사의 도를 힘

써 지키겠다고 서약하며 권사로 취임하였다.

3부 안수식에서는 나기성 최인성 신철원 서재영 집사가 안수식을 통하여 안수집사로 임명받았다. 정재은 이정원 소경아 집사는 권사로 임명을 받아 앞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봉사하며 목회자와 협력하여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한 후 안수를 통해 임직을 받았다. 이후 내외빈들의 축사와 권면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